

장애인식개선 캠페인

당선작을 소개합니다

너의 몸이 불편해 아무 말 못하더라도
나는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
들어줄게 너의 모든 말이 어떤 형태일지라도
이해할 수 있어 우리 같은 마음이니깐

N행시 1등/강*주(3053)

장애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알지
못합니다. 그저 단순히
애초부터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
러나, 이제 변해야 합니다. 그들도 차별
받지 않고
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 사회의
구성원이라는 것을, 항상 응원합니다.

N행시 3등/이*민(8247)

BE HAPPY
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
쉽진 않지만, 만인이 평등하게 살아가야
함을 인식하고, 또 다른 나에게 보내는 선
한 영향력이다.

생각나눔 챌린지 2등/허*우(4626)

인간은 누구나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
식사를 매일 하는게 당연하듯이 장애인의
권리와 인식 역시 더욱
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. 우리의
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
선순환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

N행시 3등/신*성(6651)

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
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배려들이 모여져서
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.

생각나눔 챌린지 3등/김*아(0218)

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.
나부터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
들어주는 것이 인식개선을
이루내는 첫걸음입니다.

N행시 2등/최*하(6563)

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
시선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.

생각나눔 챌린지 1등/김*아(7577)

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
나무들이 어우러져 숲이 되는것 처럼 당연
한 삶이다.

생각나눔 챌린지 3등/이*진(3455)

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?
애정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직도
와닿지 않으신다구요?
인간으로서 모든 삶은 존중받아야 합니다.
그들의 마땅한 권리를 지켜주세요.

N행시 3등/이*기(2434)

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
가는 것은
세상 모든 문의 문턱을 없애는 것입
니다. 문턱없는 평등세상함께 만
들어가요.

생각나눔 챌린지 2등/정*혜(2904)

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
그들의 정체성과 개성을 '존중'할 것이다.

생각나눔 챌린지 3등/서*아(4124)